

#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임현숙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Married Immigrant Women's, Resilience, Happiness

Hyun-Suk Lim  
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탄력성 및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146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국적( $p=.012<.05$ ), 소득수준( $p=.005<.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 $r=.774, p<.001$ ), 행복감( $r=.682,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행복감( $r=.784,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지지( $p<.001$ )는 자아탄력성( $\beta=.687$ )과 행복감( $\beta=.609$ )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silience and happiness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resilience and happiness strategies. This study provided 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of 146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mmigrant women's nationality ( $p=.012<.05$ ), income level ( $p=.005<.05$ ), resilience ( $r=.774, p<.001$ ), and happiness ( $r=.682, p<.001$ ).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 $r=.687$ ) and happiness ( $r=.609$ ).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appiness ( $r=.784, p<.001$ ).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ocial support ( $p < 0.001$ )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silience ( $r=.687$ ) and happiness ( $r=.609$ ).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authors aim to improve the resilience and happin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help them lead happier and more stable family and social lives.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various programs and social support will be developed to help them.

**keyword** : Happiness, Marriage Immigration Women, Multiculture, Resilience, Social Suppor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2022년 기준 전국의 총 가구원 1,151,004명

중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175,365명에 달하며, 결혼이주여성 급증과 함께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다[1].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인권침해

\*Corresponding Author : Hyun-Suk Lim(Howon Univ.)

email: progress@howon.ac.kr

Received October 4,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Revised November 2,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및 사회적 차별에 있어 취약한 계층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 취득, 자녀 양육, 사회 보장에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불안정하게 살아가고 있다[2].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살아온 익숙했던 문화에서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적응해 나가며,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3].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로 이주를 선택한 이후 한국사회 내에서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내 역할을 감당하며,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다[4].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에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을 뜻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진을 낮춘다[2].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거나 감소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주고 좌절 극복에 도움이 되며,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한다[5]. 결국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얻게 되는 정서적 지원이며, 기능적 도움, 수용적 교류와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실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6].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될 때 정서적 안정이 증진되며, 업무의 지침을 제공하고 사회생활을 더욱 잘 적응하도록 돕는 요소이며, 내적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7].

자아탄력성은 역경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으로[8]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며,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자기행동을 하여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이다[9].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을 기초하여 성격 발달 맥락에서 역경이나 변화의 노출로 인한 역동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역경을 겪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적응을 수반하는 성공적인 적응의 과정이나 능력이다[10]. 실제로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닌 사람은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닌 사람들 보다 좀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1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안정적이고 유능하다고 하였다[12].

자아탄력성이 역경에 극복하는 개념적 특징 때문에,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13]. 따라서 높은 자아탄력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적응과 자립에 필수 요인으로 고려

되고 있다[14].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제시한 국가별 행복 지수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순위는 59위로 미국(16위) 대만(26위), 일본(54위) 보다 낮은 상태이다[15]. 행복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이자 삶속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는 인류의 보편적인 관심사이다[16].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개인마다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황은 주관적이다. 따라서 행복감이란 전반적인 삶에 대해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로 정의할 수 있다[17].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중 사회적 지지,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3,4,5,7,14]는 있으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지지[3,5-7]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가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적응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며,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탄력성 및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한다
- 2)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 한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행복

감의 차이를 파악 한다

- 4)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 5)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다

## 2.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I시와 M군 소재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2) 기초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설문지는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창한 결혼이주여성이 통역을 도왔으며, 설문지에 나타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시 개인 정보는 비밀보장이 되며, 연구 참여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출판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사례 수 산정을 위한 조건으로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90,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2로 하였으며, 투입할 예측변수의 총 수는 통제변인까지 고려해 9개로 가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41명으로 산정되어, 총 16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19부는 제외하고 최종 146부를 분석에 사용해 본 연구의 표본은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019년 10월에 I시와 M군 소재 다문화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후 조사대상 기관장으로부터 승인

을 얻은 후 자료 수집을 2019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18]이 개발하고, 내적일관성을 Kim[19]이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척도 즉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되어 사회적 지지를 체계화 한 것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방식은 현재 일상생활 중에 주위사람들(가족, 친구, 친척, 이웃, 직장동료, 전문가 등)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국제결혼 이주여성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로써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4$ 였고 본 연구에서 자료의 정규성을 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였으며, 왜도는 -0.378, 첨도 -0.685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3$ 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 2.3.2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코너-데이비드슨 자아 탄력성 척도 한글판 (Korean-Connor-Davidson Resilienc Scale, CD-RISC)를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는 0~4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자아 탄력성 정도를 의미한다. 강인성, 인내력, 낙관성, 통제감, 영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코너-데이비슨 자아 탄력성 척도의 한글판 (K-CD-RISC)은 높은 타당도를 보인다[20]

본 연구에서 왜도는 -0.425, 첨도 -0.648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0$ 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 2.3.3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옥스퍼드 행복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옥스퍼드 행복질문지는 Arygle, Martin, Crossland[21]가 제작한 옥스

퍼드 행복검사를 Hill과 Arygle[22]가 29문항 Likert 5 점 평정척도로 수정한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제작 당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 7주 후의(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왜도는 -0.110, 첨도 -0.054으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2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 2)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ANOVA를 수행하였다
- 4)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 5)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20~30대가 120명(82.2%)로 전반적으로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적은 베트남 86명(5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 18명(12.3%), 중국 14명(9.7%), 캄보디아 12명(8.2%), 필리핀 11명(7.5%), 기타 5명(3.4%)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연령대의 경우 20대 51명(34.95%), 30대 69명(47.3%), 40대 13명(8.9%), 50대 13명(8.9%)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의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97명(6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부부, 미혼자녀 가구가 46명(31.5%)으로 다음 순위였다.

본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9명(4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53명(36.3%), 대졸이상이 24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Nationality		
China	14	9.7
Japan	18	12.3
Philippines	11	7.5
Vietnam	86	58.9
Cambodia	12	8.2
etc.	5	3.4
Immigrant Women age		
twenties	51	34.9
thirties	69	47.3
forties	13	8.9
fifties	13	8.9
Immigrant Women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53	36.3
high school graduate	69	47.3
over college graduate	24	16.4
Spousal age		
thirties	19	13.0
forties	91	62.3
fifties	36	24.7
Spousal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24	16.4
high school graduate	100	68.5
over college graduate	22	15.1
Family composition		
couple	3	2.1
couple + unmarried children	97	66.4
parents+couple+unmarried children	46	31.5
Income (economy)		
less than one million won	15	10.2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61	41.8
More tha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48	32.9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22	15.1
Duration of residence		
less than three years	8	5.5
More than 3 to less than 5 years	24	16.4
More than 5 to less than 7 years	30	20.6
more than seven years	84	57.5
marital satisfaction		
full satisfaction	3	2.1
Satisfaction	13	8.9
Ordinary	76	52.1
Unsatisfactory	40	27.3
Great Unsatisfactory	14	9.6

배우자 연령대는 40대 91명(62.3%), 50대 36명(24.7%), 30대 19명(13.0%)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0명(6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24명(16.4%), 대졸이상 22명(15.1%)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 즉 수입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61명(4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가 48명(32.9%), 300만 원 이상 400만 원이하가 22명(15.1%), 100만 원 이하가 15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7년 이상이 84명(57.5%), 5년 이상 7년 미만이 30명(20.6%), 3년 이상 5년 미만이 24명(16.4%), 3년 미만이 8명(5.5)로 대다수가 5년 이상 장기 거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의 경우 보통이다 76명(52.1%), 만족한다 13명(8.94%), 매우 만족한다 3명(2.1%), 불만족 40명(27.3), 매우 불만족 14명(9.6%)로 대다수가 보통이상 만족한다 에 분포해 있었다(Table 1).

### 3.2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특성과 정도

도구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happines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Cronbach's α
Social support	40	125	88.49	21.34	-0.378	-0.685	.973
Resilience	43	120	86.69	19.80	-0.425	-0.648	.960
Happiness	47	134	94.75	19.07	-0.110	-0.054	.932

자료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였으며,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7 이내인 경우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왜도는 -.425~-.110이며, 첨도는 -.685~-.054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932~.973으로 .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다.

### 3.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행복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행복감

의 차이에 대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국적( $p=.012<.05$ ), 소득수준( $p=.005<.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냈으며, 국적은 일본이 99.00으로 기타의 71.40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2, 4 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1 보다 높았다.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적( $p=.004<.05$ ), 가족구성 형태( $p=.020<.05$ ), 배우자 학력( $p=.031<.05$ ), 소득 수준( $p<.001$ )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국적은 베트남이 90.83으로 기타의 68.40보다 높았으며, 가족 구성 형태는 본인+남편이 56.67로 가장 낮았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이 89.51로 대졸이상보다 높았으며, 소득수준은 2, 4 수준이 1 보다 높았다.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적( $p=.001<.05$ ), 본인 학력( $p=.017<.05$ ), 배우자 학력( $p<.001$ ), 소득수준(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국적은 베트남이 100.17로 기타보다 높았으며, 본인 학력은 중졸이하가 100.11로 대졸이상보다 행복감이 높았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2 수준이 102.72로 1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 3.4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행복감과 상관을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은 사회적지지( $r=.312, p<.001$ ), 자아탄력성( $r=.234, p=.005<.05$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 $r=.774, p<.001$ ), 행복감( $r=.682,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행복감( $r=.784,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and Happiness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Resilience	Happiness
marital satisfaction	1.000			
Social support	.312***	1.000		
Resilience	.234**	.774***	1.000	
Happiness	.109	.682***	.784***	1.000

\*  $p<.05$  \*\*  $p<.01$  \*\*\*  $p<.001$

Table 3.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Resilience		Happiness	
Nationality	China (a)	84.64	±27.47	84.00	±23.55	89.43	±17.69
	Japan (b)	99.00	±19.29	88.72	±14.10	92.83	±10.00
	Philippine (c)	80.82	±18.94	78.55	±17.08	81.82	±14.43
	Vietnam (d)	90.59	±19.26	90.83	±19.51	100.17	±20.46
	Cambodia (e)	76.33	±25.01	72.25	±15.63	83.17	± 8.46
	etc (f)	71.40	±18.88	68.40	±20.86	79.40	±15.24
	F (p)	F(p)	3.035	(.012)	3.646	(.004)	4.728
		b)f		d)f		d)f	
Family composition	couple	79.67	±31.26	56.67	±13.20	77.67	±19.73
	couple+unmarried children	87.59	±21.96	86.40	±20.67	94.72	±20.93
	parents+couple+unmarried children	90.98	±19.54	89.26	±16.64	95.91	±14.14
	F (p)	.653	(.522)	4.006	(.020)	1.294	(.277)
Immigrant Women age	twenties (a)	92.94	±19.69	92.12	±18.15	100.29	±19.56
	thirties (b)	84.83	±21.25	84.01	±20.79	91.81	±19.86
	forties (c)	86.69	±24.51	80.77	±19.86	91.15	±16.25
	fifties (d)	92.31	±23.38	85.54	±17.77	92.15	±10.16
	F (p)	1.607	(.190)	2.149	(.097)	2.275	(.083)
Immigrant Women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a)	89.28	±21.00	87.34	±20.30	100.11	±21.06
	high school graduate (b)	86.78	±22.14	86.57	±19.58	93.10	±18.38
	over college graduate (c)	91.67	±20.09	85.63	±20.12	87.63	±12.81
	F (p)	.520	(.596)	.064	(.938)	4.205	(.017)
Spousal age	thirties (a)	87.58	±22.70	87.00	±24.89	93.32	±23.18
	forties (b)	89.97	±21.25	88.11	±19.09	96.70	±19.94
	fifties (c)	85.25	±21.04	82.94	±18.67	90.56	±13.40
	F (p)	.647	(.525)	.879	(.417)	1.409	(.248)
Spousal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a)	85.25	±22.60	82.46	±20.70	93.54	±19.77
	high school graduate (b)	90.90	±19.77	89.51	±18.46	98.18	±17.79
	over college graduate (c)	81.09	±25.40	78.50	±22.44	80.45	±17.91
	F (p)	2.276	(.106)	3.566	(.031)	8.674	( $<.001$ )
		b)c					
Income (economy)	less than one million won (a)	72.00	±19.26	70.13	±19.72	81.33	±18.07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b)	92.03	±18.50	92.00	±17.20	102.72	±18.60
	More tha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c)	86.56	±23.66	82.31	±20.87	89.44	±18.97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d)	94.14	±19.85	92.82	±16.32	93.36	±11.00
	F (p)	4.494	(.005)	7.279	( $<.001$ )	8.427	( $<.001$ )
		b,d)a		b,d)a		b)a	
Duration of residence	less than three years (a)	96.00	±23.28	91.38	±22.29	94.38	±22.97
	More than 3 to less than 5 years (b)	85.04	±18.64	82.92	±17.61	95.63	±17.16
	More than 5 to less than 7 years (c)	86.80	±22.80	85.33	±21.38	95.13	±25.01
	more than seven years (d)	89.37	±21.47	87.81	±19.73	94.39	±17.05
	F (p)	.645	(.588)	.571	(.635)	.031	(.993)

Table 5. S Social support, Resilience, Happiness the effects

모형	Resilience					Happiness				
	B	SE	$\beta$	t	p	B	SE	$\beta$	t	p
(Constant)	2.116	9.063		.233	.816	2.116	9.063		.233	.816
Nationality (Japan)	-6.288	4.455	-.105	-1.411	.161	-6.288	4.455	-.105	-1.411	.161
Nationality (Philippine)	-2.560	4.982	-.034	-.514	.608	-2.560	4.982	-.034	-.514	.608
Nationality (Vietnam)	2.197	3.484	.055	.631	.529	2.197	3.484	.055	.631	.529
Nationality (Cambodia)	-8.049	4.841	-.112	-1.663	.099	-8.049	4.841	-.112	-1.663	.099
Nationality (etc)	-8.550	6.382	-.079	-1.340	.183	-8.550	6.382	-.079	-1.340	.183
Family composition (couple + unmarried children)	21.278	7.149	.509	2.976	.003	21.278	7.149	.509	2.976	.003
Family composition (parents+couple+unmarried children)	23.185	7.320	.546	3.167	.002	23.185	7.320	.546	3.167	.002
Immigrant Women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002	2.338	.051	.856	.393	2.002	2.338	.051	.856	.393
Immigrant Women education (over college graduate)	2.683	3.505	.050	.766	.445	2.683	3.505	.050	.766	.445
Spous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019	2.765	.048	.730	.466	2.019	2.765	.048	.730	.466
Spousal education (over college graduate)	-3.402	3.820	-.062	-.891	.375	-3.402	3.820	-.062	-.891	.375
Income (economy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6.385	4.094	.160	1.559	.121	6.385	4.094	.160	1.559	.121
Income (economy (More tha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2.192	4.070	.052	.539	.591	2.192	4.070	.052	.539	.591
Income (economy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6.682	4.517	.121	1.479	.141	6.682	4.517	.121	1.479	.141
marital satisfaction	.201	1.299	.009	.155	.877	.201	1.299	.009	.155	.877
Social support	.638	.054	.687	11.735	.000	.638	.054	.687	11.735	.000
	$R^2 = .648$ adj $R^2 = .648$ F=17.676(p<.001) d=2.309					$R^2 = .595$ adj $R^2 = .595$ F=14.312(p<.001) d=2.169				

\* p<.05 \*\* p<.01 \*\*\* p<.001

### 3.5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Dummy 변수로 변환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결혼만족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은 2.309, 행복감은 2.16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VIF 값은 1.425~4.312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p<.001)는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beta=.687$ )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며,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64.8%이다.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p<.001)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beta=.609$ ) 행복감이 높아지며, 행복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9.5%이다 (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그리고 행복감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이 사회적 지지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았고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일본, 중국 순이었다. 이는 캄보디아가 가장 높고 일본이 낮았던 경우[10]와 조금 차이를 보이니 대상자가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본 연구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10]으로 거주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그리고 행복감의 차이를 보면 사회적 지지는 국적과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때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원문화 유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4]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를 본 논문[6]에서 출신국, 연령, 월 가계 총소득에서 차이를 보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자신들의 가족생활 수준을 볼 때 친정 국가의 생활수준이 비교준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일본이 가장 생활수준이 낮았다는 결과[10]도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국적, 가족구성 형태, 배우자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은 국적은 베트남이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에 있어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높았던 결과[6]와 비슷하다. 가족구성 형태로는 부모와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에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부부 단독 가정보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은 가족관계가 주는 위계질서가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녀양육과 부모 공양 두 가지의 부담감보다는 가족 간 관계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긍정적 지지적 환경이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감정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23]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구성 형태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추후 연구에서 다뤄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 이상이 대졸 이상 또는 중졸 이상보다 높았다. 남편의 학력과 자아탄력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은 없지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지지에서 남편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시부모의 지지, 한국친구 지지, 모국친구 지

지 순으로 나타난 연구[3]의 결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편의 학력과 근무형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남편의 고졸 학력이 대졸이나 중졸보다 가정에 더 머물기 쉬운 직업을 갖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고찰해볼 여지가 있다. 남편의 지지와 결혼행복감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3]도 이에 대한 반증이다.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본인의 학력, 배우자의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인의 학력과 배우자의 학력은 직업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연구결과[4]와도 같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로가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 소개가 많고 사회적 지지자원의 종류가 협소하다[5]고 되어 있어, 사회 활동 참여에 학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 여성이 양질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언어 및 문화차이 등이 있다[5]고 할 때, 그 차별의 바탕에 학력도 포함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응을 잘 하게 할 대안이 어떤 것일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그리고 행복감의 상관관계에 있어 결혼만족은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7]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연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6], 사회적 지지와 결혼행복감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3]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71%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10]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육아부담이 뒤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들의 육아환경을 개선시킬 제도가 시급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해서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고 네트워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제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행복감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연구[6]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는 연구의 결과[3]와



도 같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중 지역사회 활동이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문 능력개발 활동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4]는 본 연구결과 및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연구들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COVID-19이후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는 연구자의 의견[24]에 합리적 동의를 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주는 순기능은 많지만 사회적 지지에 앞서 어머니의 행복감은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우선한다는 연구[17]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기대하는 역할 중 가정용화의 역할이 가장 높고 다음 순이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가족 내에서 타인의 지지에 있어 남편의 지지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연구 결과[3]와도 같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활동 참여 중 경제 활동 만이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24] 상당한 재무스트레스 하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에 중심이 되는 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로 긍정적이었다[25].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복감, 자아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사회적 지지에 앞서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겪는 양육부담감 등도 차후 연구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탄력성,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행복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간호학적 의의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적절한 표본수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또한 대상자들의 국적분포도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분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을 추후 연구 시 더욱 보강해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세부사항을 더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census 2022, 20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 [2] Y. J. Kim,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Law Review*, Vol 63, pp.35-85 2012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66370>
- [3] B. H. Mun, S. M. Le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Multicultural Women on Their Self-esteem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0, pp.209-228, 2017.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5963396>
- [4] J. H. Lee, Y. H. Rho,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cculturative Stress and Acculturation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Korea",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Vol 6, No 2, pp.35-59, 2015.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181352&googleIPSandBox=false&mark=0&ipRange=false&accessgl=Y&language=ko\\_KR&hasTopBanner=true](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181352&googleIPSandBox=false&mark=0&ipRange=false&accessgl=Y&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 [5] D. S. Seo,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Burden and Family Health",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5, pp.557-575, 201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O02276021>
- [6] J. H. Ham, H. K. Jeong, M. H. Kwon,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23, No 2, pp.329-348, 200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O01408248>
- [7] M. H. Im, J. B. Se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Social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cultural adaptation and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17, No 1, pp.1-19, 20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55025>
- [8] J. H. Kim, Resilience, wisdomhouse, SEOUL, Korea, pp268, 2019.
- [9] S. T. Song, *A study on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Family Fuction and Acculturation Stress on Mental Health of the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 doctor's thesis, Kangnam University, 2015.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9db09&control\\_no=64ce343575c5339cffe0bdc3ef48d419&keyword=%EB%8B%A4%EB%AC%B8%ED%99%94%EA%B0%80%EC%A0%95%20%EC%86%A1%EC%88%9C%ED%83%9D](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9db09&control_no=64ce343575c5339cffe0bdc3ef48d419&keyword=%EB%8B%A4%EB%AC%B8%ED%99%94%EA%B0%80%EC%A0%95%20%EC%86%A1%EC%88%9C%ED%83%9D)
- [10] S. M. Yang, K. H. Choi, K. H. Kang, "Aspects of the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Korean rural area and th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 16, No 4, pp.713-742, 200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O01412323>
- [11] E. C. Klohnen, E. Vandewater & A. Young(1996), "Negotiating the middle years:Ego-resiliency and successful midlife adjustment," *Psychology and Aging*
- [12] A. R. Chung, S. H. Yoo,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and ego-resilience to interpersonal problem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8, pp.139-160, 2009.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5412681>
- [13] M. Rutter(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Orthopsychiatry* 57, pp 316-331. 1987
- [14] J. H. Seo, *TheEffectofMarriedWomen'sFamilyHealth o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ungnam University, 2013.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1939-0025.1987.tb03541.x>
- [15] Statistics Korea, *Korean Social Trends 2022, 2023*.  
<https://kostat.go.kr/unifSearch/search.es>
- [16] G. W. Dong, *Effects of Psychiatric Nurses' Violent Experience on Work Happiness: Moderating Effect of Self Soothing Ability*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792>
- [17] H.N.Choi,*TheRolePracticesofFathers'ofInfantsand ToddlersMothers'Happiness*,The Graduate School of v Child Careand Education, Korean Bible University, 2012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thod=L&searchClass=S&controlNo=KDMT1201337355&queryText=&zone=&fieldText=&prevQueryText](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thod=L&searchClass=S&controlNo=KDMT1201337355&queryText=&zone=&fieldText=&prevQueryText)
- [18]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85.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thod=L&searchClass=S&controlNo=KDMT1198601406&queryText=&zone=&fieldText=&prevQueryText](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thod=L&searchClass=S&controlNo=KDMT1198601406&queryText=&zone=&fieldText=&prevQueryText)
- [19] G. C. Kim, *A Study for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Inter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2010.
- [20] K. B. Koh, J. K. Park, C. H. Kim, "Development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NPA)*, Vol 39 No 4, pp.707-719, 2000.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thod=L&searchClass=S&controlNo=KINX2000081335&queryText=&zone=&fieldText=&prevQueryText](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thod=L&searchClass=S&controlNo=KINX2000081335&queryText=&zone=&fieldText=&prevQueryText)
- [21] Argyle, M., Martin, M., & Crossland, J. "Happiness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and social encounters", *Recent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189-203. 1989.
- [22]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7), 1073-1082.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191886901002136>
- [23] A. R. Han, M. Kong, E. Y. Choi, "A Research on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Improving Ego-Resilience of the Women Naturalized by Marriag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1(3), 245-262, 2015.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538>
- [24] S. Y. Jin, M. H. Jung,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Marriage Migrant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n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Culture Industry* .22(1), 111-117, 202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51471>
- [25] S. Y. Jin, M. H. Jung,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Financial Stress and Happin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Financial PlanningReview*, 22(1), 73-92, 201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67639>

임 현 숙(Hyun-Suk Lim)

[정회원]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다문화여성